

# 윤병세 장관 방일...한·일 꼬인 실타래 풀리나

### 22일 국교정상화 50주년 행사 참석...외교회담 등 예정 위안부 등 논의 전망...8월 '아베 담화'서 사과여부 주목

윤병세 외교부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오는 21일 일본을 전격 방문할 것으로 전해져 경색된 한일관계에 선순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 장관의 이번 방일은 박근혜 정부 초대 외교수장으로 처음이다. 그는 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 4월 말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그 직전 아소 다로(麻生太郎) 부총리 겸 재무상이 야스쿠니(靖國) 신사를 참배하자 방일 일정을 취소했다.

우선 윤 장관의 이번 방일은 하루 뒤인 22일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관계 개선의 계기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이에 따라 윤 장관의 방일이 선순환 효과를 일으켜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비롯해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양국간 관계 정상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 장관의 방일이 당장 손에 잡히는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더라도 관계개선을 위한 분위기 활성화에 동력을 불어

넣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장관은 기사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과 회담을 갖는 한편, 주일 한국대사관이 도쿄에서 개최하는 국교정상화 50주년 리셉션에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는 양국관계의 걸림돌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해 조선인 강제노동 현장이 포함된 일본의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추진,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등의 현안이 한꺼번에 논의될 전망이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한일관계를 풀 핵심고리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2일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간 협의와 관련해 '상당한 진전', '마지막 단계'를 언급한 바 있다.

그런 만큼 윤 장관과 기사다 외무상이 회담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담판을 시도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위안부

문제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고, 좋은 분위기가 이어져 아베 신조 총리가 오는 8월 중순 70주년 계기 연설(아베 담화)에서 과거 식민지배와 침략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죄와 반성의 뜻을 명확히 하면 한일관계는 정상회담까지 가시권에 들어오며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

위안부 문제가 걸림돌이 되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각각 취임 이후 기자회견에서는 몇 차례 얼굴을 맞닿 기회를 가졌지만 양자 차원의 정상회담은 한 번도 열지 못했다. 주일 한국대사관이 도쿄에서, 주한 일본대사관이 서울에서 각각 개최하는 국교정상화 50주년 리셉션에 양국 인사의 방문도 관계개선 분위기 조성 측면에서 기대를 넣고 있다.

주일 한국대사관의 리셉션에 윤 장관과 함께 기사다 외무상이 함께 참석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관측이 나온다. 아베 총리의 외교책사인 야치 쇼타로(谷内正太郎) 국가안전보장국장이 주일 한국대사관의 리셉션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일본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은 야치 국장이 국교정상화 50주년 계기에 방한해 주한 일본대사관이 개최하는

리셉션에 참석하고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회담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지만 정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들어보지 못한 얘기"라고 말했다.

주한 일본대사관이 서울에서 개최하는 리셉션에도 우리 측 고위 인사의 참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리셉션 참석을 위해 일본 측 고위 인사의 방한이 검토되고 있다는 얘기도 전해진다.

그러나 윤 장관의 방일이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일이 8차례에 걸친 국장급 협의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룬 것은 사실이지만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 등 핵심 쟁점을 놓고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가 그동안 윤 장관의 방일을 놓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것도 '지나친 기대'에 대한 부담감이 컸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일 외교장관회담 이후에도 일본이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관련, 조선인 강제노동이라는 역사적 사실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요구를 끝내 거부하면 우리 정부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 /연합뉴스

## 북한, 남한 국민 2명 판문점 통해 송환

### “인도주의적 차원” 밝혀

북한은 17일 판문점을 통해 우리 국민 2명을 송환한 데 대해 인도주의적 차원이라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남한 국민 2명의 입북이 '불법 국경출입행위'라며 '공화국 법에 대한 난폭한 위반행위이며 응당 법대로 처리돼야 하지만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돌려보내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송환 결정 배경에 대해 "본인들이 고의로 저지른 범죄행위라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용서해줄 것을 간절히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통신은 또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장이 지난 15일 남한 적십자사 총재에게 보낸 송환 관련 통지문에서 "앞으로 남

조선 주민들 속에서 이번과 같은 비법( 불법) 행위가 또다시 발생하는 경우 엄중한 후과(결과)가 초래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통신은 이어 지난 5월 11일 북한의 '해당 기관'이 불법 입북한 남한 국민 이모(58·남)씨와 진모(50·여)씨를 단속했고 이날 판문점을 통해 남측 적십자사에 인도했다고 덧붙였다. 통신은 이들의 이름과 나이도 소개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15분께 판문점에서 북한에 들어온 우리 국민 두 명을 넘겨받았다고 밝혔다. 송환 대상자는 북·중 접경지역 여행 중 실종 신고됐던 부부다. 통일부는 이들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입북 경위 등에 대해 확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 中 양쯔강 유람선 침몰 희생자 장례 마무리

### 15일만에...442명 사망

중국 양쯔(揚子)강 유람선 침몰사고가 발생한 뒤 보름 만에 희생자 장례가 모두 마무리됐다.

17일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 따르면 중국 후베이(湖北)성 정부는 전날 희생자 2명을 마지막으로 화장하는 것으로 '동광즈싱'(東方之星)호 침몰사고로 숨진 442명의 장례를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오후 9시28분 후베이성 젠리(監利)현 양쯔강에서 침몰사고가 발생한 이후 만 15일이 채 안되는 기간에 구조수색부터 희생자 장례까지 일사천리로 이뤄진 셈이다.

이제 남은 것은 유가족에 대한 배상과 사고 원인조사, 책임자 처벌 등이다.

중국 당국은 이번 침몰사고 선박에 모두 454명(승객 403명, 선원 46명, 여행사 직원 5명)이 승선했으며 12명이 생환하고 442명이 숨진 것으로 최종 집계했다.

당국은 구조수색을 통해 실종자 시신을 모두 수습했으며 사고 발생지인 젠리현, 인근에 있는 흥후(洪湖)시와 장링(江陵)현 등 3곳에서 장례절차를 진행했다.

이번 합동 장례식에는 텐진(天津), 장쑤(江蘇), 상하이(上海) 등에서 소집된 40여 명의 장의사, 200여 명의 장례 전문가, 20여 명의 직업학교 학생 등이 동원됐다.

당국은 유족들로부터 장례 신청을 받은 뒤 각각 장의차와 운전기사, 민생간부, 경찰관 등을 배치해 장례를 치르도록 했다.

## 시리아 쿠르드 민병대, IS 점령 텔아비야드 장악...무기 등 주요 공급로 차단

### IS본부 위치한 락카 인근 지역 난민 수천명 목숨 건 터키행

시리아 쿠르드족 민병대인 인민수비대(YPG)가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가 점령한 시리아 북부 도시 텔아비야드를 장악했다.

텔아비야드는 IS가 자체적으로 선포한 수도인 락카와 연결되는 전략적 요충지로, 이번 점령은 IS의 주요 공급로를 차단하는 효과를 내게 된다.

15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과 터키 도안통신, 쿠르드계 매체인 ANF뉴스 등에 따르면 YPG는 IS 차하의 시리아 북부 도시 텔아비야드를 완전히 점령했다고 발표했다.

YPG는 IS 본부가 있는 락카로 연결된 남쪽 도로까지 확보했다. IS가 지난해 1월부터 점령한 텔아비야드는 석유 밀매와 무기, 외국 조직원 유입의 대표적 경로로 활용됐다.

이에 따라 IS의 외국 조직원 유입과 자금줄이 끊겨 앞으로 IS의 전력이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리아 반군과 미국 주도 반 IS 국제동맹군은 YPG의 텔아비야드 점령을 지원

### 시리아 쿠르드, IS 점령한 터키접경 요충지 장악



했다.

특히 반 IS 국제동맹군의 공습이 YPG의 전세에 큰 도움을 줬다는 평가다.

YPG는 텔아비야드 점령으로 지난 1월 시리아 북부 코바니에 이어 두 번째로 요충지에서 IS를 격퇴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YPG는 지난달 말 시리아 북부 하사케



16일(현지시간)시리아 정부군의 집중 공습을 받은 시리아 다마스쿠스 두마 지역에서 주민들이 무너진 건물 잔해에서 부상자를 입은 어린 아이들을 구출해내고 있다. /연합뉴스

에서 온건 반군인 자유시리아군(FSA)과 함께 텔아비야드 진격을 시작했으며, 미국이 주도하는 반 IS 국제동맹군이 공습으로 지원했다.

YPG와 IS 간 격전으로 이날 민간인 수천 명이 터키로 피난하는 등 이달 초부터 지금까지 터키 국경을 넘은 난민은 1만 8000여 명에 이른다. /연합뉴스

터키 정부는 전날부터 약자칼레 국경검문소 인근 철조망으로 몰려든 텔아비야드 주민들의 입국을 허용했다.

터키는 애초 입국을 허용했으나 인도적 위기 상황이 아니면 난민을 수용할 수 없다며 며칠간 입국을 중단했으며 주민들이 철조망을 넘는 등 혼란을 빚었다. /연합뉴스

## ‘시진핑의 反부패 칼끝’ 군대 정조준

반세기 넘게 ‘철용성’을 유지해온 군가득근 개기에 본격 착수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부패 장성 두 명을 추가로 잡아들였다.

17일 관영 영자지 차이이네일리에 따르면 인민해방군 야전군 출신의 전 해이룽장(黑龍江)군구 사령관 커우테(寇忒) 예비역 소장과 무장경찰 교동지휘부 전 사령관 류잔치(劉占琪)가 엄중한 기율 위반 혐의로 군 검찰기관으로 이송됐다.

인민해방군과는 별개로 운영되는 준군사조직인 무장경찰 소속 고위급 간부가 부패 수사망에 걸려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차이이네일리는 특히 “류잔치는 (무장경찰) 병창 부문에서 부동산 프로젝트와 물품 조달을 담당했다”며 그에 대한

수사가 최근 중국군 지도부가 발표한 ‘전군 건설사업 및 부동산 자원 관리에 대해 전면적 정리사업’과 연관돼 있음을 시사했다.

중국군 지도부가 ‘시진핑 당 중앙군사위 주석’의 비준을 거쳐 발표한 이 조치는 군조직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해온 각종 이권사업을 당·정 지도부가 직접 통제하고 규제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부패 장성 두 명이 추가 낙마함에 따라 시진핑 체제가 시작된 2012년 말 제18차 당 대회 이래 반(反)부패 캠페인에 걸려 낙마한 장성급 이상 군 간부는 37명으로 늘었다. 전체 ‘상부급’(省部级·장차관급) 관료로 따지면 108명에 이른 다. /연합뉴스

## 상무지구 사무실 임대

〈5층 100평/즉시입주가〉

평수 100평 (분할가능) 5층 전체사용 보증금 2천만원 월 130만원

- 1.현 학원 운영중
- 2.상무지구 제일 저렴한 사무실
- 3.시설완비 / 에어컨 2대 내부 깔끔
- 4.시설비 4천만원등 시비 약간 있음
- 5.엘리베이터 완비, 주차 3대무료
- 6.금융가도로 바로 이면코너

010-7384-7800/010-6670-9800

## 법원경매(주)대신경매

수익성 상가 (근린 상가)	추천 특수물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서구 금호동 7층동(층도180㎡, 21285㎡)감평가 6966천 - 최저가 2943천</li> <li>2.광산구 월계동(토42㎡, 21135㎡)감평가 294 - 최저가 1944천(합동상가)</li> <li>3.서구 차평동 (토44.77㎡, 21257.71㎡)감평가 6912천 - 최저가 4933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서구 화정동 (근린주택) (토150평, 건276평) 1층주차정(10차)2층음식점 3층노래연습장/4층주택 감평가 12억9천 - 최저가 8억4천</li> <li>2.전남 여수 관운로(세당) 집모 사무실 (토91평, 건317평) 중상상가시대 시내중심지 차량통행가능 감평가 13억 - 최저가 6억9천</li> <li>3.광산구 신가동(주유소) (토430평, 건170평) 신가병원 북동쪽 인근, 하남대로변 감평가 15억7천 - 최저가 11억</li> <li>4.북구 본충동 3층동 1층 (식당) (토177평, 건220평) 투자적합, 식당운영중 감평가 14억 - 최저가 9억6천</li> <li>5.담양 남면 구산리(교육시설/펜션) (토1427평, 건1251평) 개발기회추진 투자적합 감평가 32억 - 최저가 7억4천</li> </ul>
수익성상가 (근린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여수시 교동 (토180㎡, 21259㎡)감평가 1394 - 6993천</li> <li>2.전남 순천 인제동 (토4968㎡, 21119.76㎡) 감평가 1394 - 최저가 994</li> <li>3.담양 남면(토1427평, 211251평)감평가 32억 - 최저가 7억4천</li> <li>4.북구 문흥동 (토56평, 21588평)감평가 17억 - 최저가 17억</li> <li>5.서구 화정동 (토150평, 21276평) 감평가 12억9천 - 최저가 8억4천(근린주택)</li> </ul>	
수익성 상가 (근린 시설, 통근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화순읍 삼천리 2층건물 (토736㎡, 21476㎡)감평가 77억 - 최저가 43억(롯데마트)</li> <li>2.동구 대인동 (토780.2㎡, 211992.57㎡)감평가 2497천 - 최저가 1494</li> <li>3.순천 4층건물 (토206평, 21221평)감평가 4942천 - 최저가 394</li> </ul>	
공장/모텔/주유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광산구 신가동 (토430평, 21170평) 감평가 8955천 - 최저가 5997억(주유소)</li> <li>2.전남 정성리(부인) (토 2825평, 21614평) 감평가 41억 - 최저가 15억</li> </ul>	
직원 구함	
<p>남, 여 직원구합니다 부동산 기획 개발까지 배우실분!! 경매직원 구함, 경매 컨설팅 같이 할 직원 구합니다.</p>	

010-7384-7800 / 010-6670-9800 / 062-226-4600

## 경매 실전교육반모집

경매이제는 대중화시대!

바로 실전 교육듣고 수익창출가능

매주 목요일, 토요일 (오전반, 오후반)  
경매기초 교육부터 ~ 실전까지 (입찰, 매매, 임대, 개발기회까지) → 노후대비 적합

010-7384-7800  
062-382-5500

## 경매직원모집

경매컨설팅 같이 근무할 직원 모집합니다.

남, 여 직원 모집합니다!  
부동산 기획개발까지 배우실분

062-382-5500  
010-2699-5300